

엘리아와 사르밧 과부

-아홉 번째 이야기-



69Page

나 레 이 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일이었어요.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.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.

엘 리 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.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십니다.

나 레 이 션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.

하 나 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

엘 리 야 예.. 알겠습니다 하나님.

나 레 이 션 어느 날,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 하셨어요.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알려 주셨어요.



70Page

엘 리 야 어디보자... 사르밧이 어느쪽에 있더라...

나 레 이 션 그때, 나뭇가지를 줍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.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. 엘리아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어요.

엘 리 야 지금 내게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겠습니까?

나 레 이 션 사르밧 과부는 첫눈에 엘리아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. 하지만 과부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엘리아의 부탁이 부담스러웠어요.

과 부 저는 먹을 떡이 없습니다. 다만 통에 가루 한 응금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였습니다.

나 레 이 션 엘리아도 과부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.

엘 리 야 당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.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도록 해요.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실 거예요.



71Page

나 레 이 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아의 말대로 했어요.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. 사르밧 과부의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.



72Page

나 레 이 셴 그러던 어느 날 사르밧 과부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. 건강했던 아들이 중병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.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어요.

과 부 (슬픈 목소리로) 왜 자꾸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?

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

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,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?

나 레 이 셴 사르밧 과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.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 침대에 눕힌 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

엘 리 아 하나님,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 과부에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셔서 어찌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?

나 레 이 셴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했어요.

엘 리 아 하나님, 간절히 기도합니다. 이 아이를 살려 주세요

아 이 아.. 배고파. 엄마 밥주세요.

나 레 이 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. 죽은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.

나 레 이 셴 사르밧 과부는 살아난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.

과 부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정말로 알겠어요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알겠습니다.

나 레 이 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.



73Page



74Page



75Page